

D-7 영암 F1 열기 달아오른다

100억짜리 머신 속속 도착...객실 예약 완료 등 손님맞이 분주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 아스팔트에 검은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시속 3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폭발적인 스피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열리는 지구상 최고의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2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이 F1 대회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당 100억이 넘는 F1 ‘머신(machine)’의 경주장 입성(入城)도 마무리된 데 이어, 전 세계를 통틀어 24명뿐인 드라이버들도 속속 한국을 찾게 된다. 아울러 경주장 길목인 목포와 남양진도 시, 영암 거리 곳곳에는 F1 개최를 환영하는 플래카드와 현수막 물결이 펼쳐져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F1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일본 그랑프리를 마친 F1레이스 팀의 머신 24대를 비롯, 경주에 필요한 각종 전자 장비 등 레이싱 관련 시설도 모두 영암 F1경주장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머신에 장착할 엔진은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뒤 통관절차를 거쳐 영암경주장에 도착하게 된다.

경주장도 FIA가 검수과정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작업을 제외하고 100% 완공됐고 가설 스탠드 설치와 한옥식 육교 지붕, 꽃탑을 비롯한 진입로 조경 정비, 주차장 단장 등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경주장으로 향하는 도심은 F1 열기로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경주장을 비롯해 시내 주요 도로와 교통섬, 교차로 등에는 플래카드와 현수막 물결에 형형색색의 꽃탑이 외부인들을 맞고 있으며 호프집, 식당, 찻집 등에서는 ‘F1 개최를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

를 내걸고 F1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F1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 호텔·리조트(290실), 모텔(9982실)·한옥민박(480실) 등 1만3689실에 대해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조직위 관계자는 “F1 경주장에 대한 최종 검수가 통과된 이후 경주장에 가보고 싶은데 ‘잠 잘 숙소를 소개해달라’는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목이 쉬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쳤던 티켓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현재 전체 12만석 가운데 4만 5000석 가량, 1만6000석인 그랜드스탠드의 경우 6000석 정도가 팔려나간 수준이다.

목포시내를 비롯, 경주장 인근 주요 식당들도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25개 목포지역 모범음식점을 비롯, 도내 262개 식당이 개인별 집계, 국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641개 식당에서는 개인별 반찬 그릇을 나눠주는 등 위생 마인드 개선에 신경쓰고 있다. 일부 식당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 인사말도 익히도록 했다.

F1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검수가 통과되면서 개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 F1 특별취재팀>

- 장필수 차장 (사회 2부)
- 최현배 차장 (사진부)
- 김지을 기자 (정치부)
- 김진수 기자 (사진부)
- 김여울 기자 (체육부)
- 임동률 기자 (사회 1부)
- 김 호 기자 (사회 1부)



한국에선 처음으로 오는 22일 개막되는 F1 대회를 앞두고 영암군 삼호읍 F1 경주장 입구에 대형 꽃탑이 설치되는 등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투력 사라진 지역 국회의원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들의 열의와 활력은 물론 중진 및 다선 의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매서운 송곳 질의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눈에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다선 의원들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국감을 빼먹거나 잠시 머무르다 자리를 비우는 불성실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나 초선 의원이나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같아야 한다”며 “다선이라 몇 점씩 지고 있는 모습은 그리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국정감사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3선 이상이거나 고위 당직 및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전투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초선이나 관료 출신 의원들의 열의도 19대 국회 초반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이슈 파이팅’으로 국감장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거나 관료의 경험에서 나오는 송곳 질의로 피감기관의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광경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부 초선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민원 등을 이유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회피하거나 입장을 고려해 수위를 조정해주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광주·전남지역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조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

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노쇠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初選 열의 없고 多選 송곳질의 실증

절반이 고참·당직 감투 ‘무기력 국감’

피는 활동을 보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평가다.

이 같은 무기력 현상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전반적인 ‘노쇠화’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은 박상천, 김영진, 유선호, 이낙연, 김성곤, 김효석 의원 등 6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상임위원장을 거친 3선 중진으로 몸이 힘이 들어 가면서 지극히 절망(?) 모습을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위 당직이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도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 우윤근 법사위원장 등 4명이나 된다. 3선 출신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사무총장에 기용됐다.

고위 당직을 맡는 경우, 당내 회의 등으로 아무래도 국정감사에 쏟을 시간이 부족해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상임위원들의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광주 특급호텔 공중통로 전면 재검토

광주시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상무지구 특급호텔 간 공중통로(Sky Walk)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5면>

광주시는 14일 “DJ센터의 활성화와 위해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으나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 향후 제2컨벤션센터 건립, 광주컨벤션타운 조성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통로 설계비 명목으로 2차 추

경예산에 편성된 1억6000여만원도 DJ센터~특급호텔 간 공중통로가 아닌 컨벤션타운의 전반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DJ센터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둔 제2컨벤션센터 간의 연결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된 공중통로 조성 사업은 사실 상 무기한 보류됐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서구 5·18 자유공원 부지 2만3628㎡에 전체면적 5만

1790㎡,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 4월 DJ센터와 특급호텔 간 길이 130m에 이르는 공중통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총공사비 40억원 중 28억원을 부담하기로 한데 대해 ‘특급호텔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학교용지 공급단가 확 내린다

조성원가 20~30%로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단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 내 학교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혁신도시 내 토지공급지침 중 학교용지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의 20~30%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 단가는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비율보다 높은 조성원가의 50~70%로 책정돼 우수학교를 유치하려는 시·도가 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왔다.

인구 5만명, 2만 가구 규모로 건설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초·중·고등학교를 수용하는 스포츠클럽스 2곳 등 모두 10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

이어서 학교부지로 구입해야 하는 면적만 15만7592㎡에 이른다.

이로 인해 당초 토지공급 지침을 따를 경우 부지매입비로 무려 390억원이 필요했으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의 20~30%로 낮춤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160억원으로 줄어 학교용지를 사들여야 하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재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나도팔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공급단가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 2013년에는 초·중·고교 1곳씩을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특목재단
- 전교 최우수 8 최첨단 명품기숙사 신축
- 보다 확실한 장학금 제도
- 2009 교육부 선정 영어리더 학교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940-8800

칠레 광부 33명 전원 구조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 갇혀있던 광부 33명의 구조작업이 매몰지점에 투입됐던 구조대원의 철수를 끝으로 14일(이하 현지시간)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구조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전대미문의 매몰자 구조작업은 69일간 이어진 광부들의 ‘인간승리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5면>

칠레 당국은 13일 오후 9시55분께

지하 700m 경도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광부인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54)를 지상으로 무사히 끌어올렸다.

지난 12일 오후 11시20분께 첫 번째 구조대원을 태운 캡슐을 지하로 내려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조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고, 이로써 약 22시간 37분만에 모든 광부들이 지상으로 올라왔다. /연합뉴스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10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10. 10. 17(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 병 용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VIP 1차정회원
분양예정
(3억5,000만원)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모집인원: 100명
- 분양금액: 1억
- 정회원 특전
 1. 공통: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2. 선택: A형, B형 중 택일
 - A형: 지정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중회원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10% 전후)
 - B형: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20% 전후)
- 입회금 납부안내
 1.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 만원)

구 분	입회금액	납입 방법	
		계약금	잔 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 2.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가능)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